



굿 사마리탄 재단

GOOD SAMARITAN FOUNDATION

주소: 1545 KAMEHAMEHA IV HONOLULU HI USA 메일: hicedar54@hanmail.net

2017년 1월호(제3호) 발행인: 김덕환. 편집인: 최옥형. 김사빈

2017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새해부터는 가난한자, 소외 된 자, 연노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내 삶과 물질을 나누는 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한인 제1 경로대학



와히아와 제2경로 대학 (9월16일 2016년 개강)



홈리스 자활 농장 전경



총영사관 앞 양로원 부지

머릿글: 김덕환목사(재단이사장)

2017년 올해로 하와이 백향목 교회가 43년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굿사마리탄 재단과 함께 사랑이 가득한 사회복지를 꿈꾸면서 굿사마리탄 재단을 설립한지도 벌써 9년째가 되었습니다. 굿 사마리탄 재단은 2014년5월 재단은 2014년5월 카폴레 이 시청사에서 하와이 주 내에서 봉사하는 수 백개 비영리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라고 호놀룰루

시가 최우수상 굿사마리탄 재단을 위해 기도로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하와이 백향목 교회와 굿 사마리탄 재단이 공동으로 하와이 주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호놀룰루시 의회 시장 등으로 12번 시 발전 공로상, 하와이 주 발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12월15일 홈리스자활 농장 하와이뉴스나우 방영 (하와이로컬 뉴스TV)

홈리스 자활 농장에 잘못 부과된 수도세

지난 12월 15일, 본 굿사마리탄 재단 이사장인 김덕환 목사와 하와이 주 하원의원인 존 미즈노 의원이 홈리스 자활농장에 잘못 부과된 수도세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하와이 뉴스 나우 TV 와 인터뷰를 한 것이 하와이 주 전체 주민 150만 명에게 방영 되었다.
문제된 내용은 시수도국이 4년 동안 홈리스 자활 농장에 물세 고지를 보내지 않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고지를 발부 한 뒤 기간 내에 물세를 납부 못하자 단수 조치를 취한 일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날 TV 방영으로 도네이션 받은 것은 3사람 670불에 불과 하였다.

하와이 제2한인 경로 대학 개교



2016년9월16일 제2한인 와히아와(wahiawa) 경로대학 개교식

굿사마리탄 재단이 경영하는 호놀룰루 제1 한인 경로대학 (학장) 함돈욱 /학생회장 :정병애)에 이어서 제2 경로대학(학장:임현진장로 학생회장:박강혜으로 2016년 9월16일(금10시)개교되었다. 114년 사망수수 한인 노동자들이 처음에 자리 잡았던 와히아와 지역은 호놀룰루 시가 개발 발전되면서 세월 속에서 퇴색 되었지만 이번에 제2 한인경로 대학이 설립 되면서 조금이나마 그 지역에 사시는 한인 동포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학교 자리 잡게 되었다. 수업내용은 100세 건강학/에어로빅 댄스/가요콩쿨 교실/ 웃음교실 등이며 밀리라니지역 필시티, 펄하버 지역 에바비치 지역 노스쇼오 지역등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통학, 하학 시 학교 밴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임현진 학장/ (808) -354-3852) 한편 이날 개교식에는 호놀룰루 시 시의원 및 하원 의원 등贵宾들이 참석하여 제2한인 와히아와 경로대학 개교를 축하 해 주었다.

임원 /이사장 :김덕환
학장: 임현진장로/ 부학장:임용민
이 사: 박정애/ 말분 히구찌.

백향목교회/굿사마리탄재단,호놀룰루시의회Certificate 받다



호놀룰루 시의부터 받은 Certificate

지난 9월 16일 호놀룰루 시의회는 하와이 백향목 교회와 굿사마리탄 재단에 시의장과 9명이 싸인한 호놀룰루 발전 공로증서를 어니마틴 시의장 (Ernest Y Martin Chair)이 김덕환 목사에게 증정 하였다.

발령 /굿 사마리탄 재단 /2017년 1월 1일

최옥형 /(굿 사마리탄 재단회보 발행 [우리들의 이야기] 취재 집필 작가
김사빈 / (굿사마리탄 재단회보 발행 [우리들의 이야기]취재진 집필 작가, 굿 사마리탄 재단회보 편집인

설교 담당: 커티스 목사
프린세스 Pastor
전화 : {808} 375-1046

박정 수련 전도사(홈리스농장)총괄메니저
박일보 수련 전도사(홈리스 농장) 메니저

홈리스 자활 농장 기부금 문의
전화 : 808-232-5768

지난 2016년 9월 달에도 한인 이민 시작 지었던 와히아와 지역에 제2 한인 경로 대학을 설립하면서 호놀룰루 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싸인 한 공로증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동안 큰 실적 없이 보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반성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괄목만한 사회 복지 사역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첫째, 봉사 헌신해 주실 고급 재능기부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단체이든지 발전하려면 인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하와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재능을 기부해 주실 봉사자와 헌신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어 통역자나,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여서 로컬정치인들이나 관리들에게 재단 사역 내용을 홍보하거나 그랜트를 신청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사무실에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하면서 추진하는 일들을 처리해 나갈만한 인재를 구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둘째, 기부금이 가뭄에 콩나듯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콩 한조각도 나누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려운 미국경제와 더 어려운 하와이 한인 경제 구조 속에서 기부금을 받기란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기 후원제도 (후원이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굿 사마리탄 재단이 운영하는 와히아와 홈리스 자활 농장세금이 4년 동안 (호놀룰루 시에서 일반과세로 잘못 과세해서)1만불 이상이 밀려있고 홈리스 자활 농장 수도세금도 4년 동안 고지 한번 없다가 7천불을 한꺼번에 내라고 고지해서 하와이 주 전체에 수도국의 잘못이하와이 로컬 TV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주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 정신 개척적인 도전정신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 땅의 가난한자 소외된 자 미국 홈리스들 연로하신 한인 어르신들 한인2세 3세들을 돕기 위하여 힘있게 사역해 나갈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여! 물론, 인권을 주옵소서! 주의 일을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3)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25)

김덕환 목사 (굿 사마리탄 재단 이사장)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많다는 것은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하늘의 뜻이겠지요”

"perhaps the Reason Why Poverty sickness and pain exist in the world is so that God wants to live sharing with one another"

위의 글은 어떤 학생의 편지 한토막입니다 기부와 자선을 록펠라나 빌게이츠나 워렌버핏이나 큰 기업가나 부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 한 조각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동하는 작은 기부와 자선이 외롭고 험하고 눈물 많은 세상을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기/부/금 /후/원/ 방/법

- *정기 후원 : (회원제도)
- *특별 회원 :매월 100불 이상 (후원이사 대우)
- *보통 회원 : 매월 20불 이상 후원
- 일시 회원 (비회원) 비정기적으로 후원
- 후원 계좌 First Hawaiian Bank

Hawaii cedar church

Good Samaritan Foundation

Swift code :FHB KUS 77

Routing # : 121301015

Account # :05-121108

**굿 사마리탄 재단 이사회
GOOD SAMARITAN FOUNDATION**

이사 장 : 김덕환목사 (808-255-1234)

사무총장 : 함돈욱장로 (808-381-1122)

이 사 : 박연진사모 (808-391-1166)

이 사: 정경철 목사(한국 010-5598-1903

(부산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 일동)

7월달 도네손	10월 도네손
고려한방 \$100	홍헬렌 \$500
오진희 \$500	고려한방 \$100
윤채용 \$100	홍정옥 \$50
김태순 \$30	DR 장 \$200
전조이 \$100	이순식 \$100
하봉옥 \$100	전조이 \$50
유승길 \$50	강경자 \$50
김정숙 \$30	양금순 \$100
김영태회장\$200	김영태회장\$100
DR 장 \$100	김간난 \$100
고려한방 \$100	배외분 \$30
총수입 \$1.410	전옥순 \$100
총지출 \$1.277	김애자 \$30
	박임준 \$100
	총수입 \$1.580
8월 도네손	11월 달 도네손
채재용 \$200	고려한방 \$100
홍성희 \$100	김종순 \$100
고려한방 \$100	홍성희 \$100
DR 장 \$200	라정순 \$20
김설미 \$100	장혜순 200
이순식 \$100	DR 장 \$200
김세은 \$200	김영태회장 \$100
천봉예 \$100	학생회 \$218
현수원 \$30	지도현 \$300
김영태회장\$200	세탁소 \$200
총수입 \$1.338	주혜자 \$50
총지출\$886.3	총수입 \$ 1.468
9월 달 도네손	총지출 \$1.318
고려한방 \$100	도네손 기부금 문의:
주혜자 \$500	제1경로대학:381-1122
메다콤수 \$100	함돈옥 장로
김테레사 \$50	제2경로대학354-3852
김미리암 \$100	임헌진 장로
윤영자 \$50	
김정순 \$50	
박강혜 \$30	
전병애 \$30	
홍성희 \$100	
DR 장 \$200	
이경례 \$100	
김영태회장\$100	
전애경 \$100	
박임준 \$100	
지효정 \$30	
윤춘매 \$30	
이수자 \$50	
고려한방 \$100	
총수입 \$1.770	
총지출 \$597.07	

제 2경로 대학		
이름	금액	잔고
서성순	\$30	
김간난	\$50	\$80
김용민	\$100	\$130
이유희	\$1000	\$1130
서순옥	\$100	\$1230
박임준	\$100	\$1330
말분히구찌	\$500	\$1830
강호순	\$30	\$1860
서성순	\$50	\$1910
재정부에서	\$150	\$2060
유순이	\$10	\$2070
티나	\$200	\$2270
김유미	\$100	\$2370
김간난	\$20	\$2390
유희엄마	\$100	\$2490
이홍숙	\$150	\$2540
박옥진	\$100	\$2640
박유정	\$500	\$3140
황유숙	\$50	\$3190
정점례	\$30	\$3220
	\$잔액	\$3220

제2 와이아하 경로 대학
1129 Kilani Ave
Wahiawa Hawaii 96786
학 장 : 임헌진
부학장 : 김용민
이사 말분 히구찌 / 박정애
영상 스크린 : 김사빈 전도사
강사 : 루비페인트/홍진숙/김유민/이숙자



제2경로 대학 수업전경

하와이 한인 이민 (우리들의 이야기) 취재 집필 사직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을 애환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영어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고향 산천을 그리지 않았나요, 저는 저녁때 노을이 지면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순경이 서시오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파출소 가신 분을 보았습니다. 잘 살아 보자고별보고 집을 나서고 별보고 집을 돌아 온적이 없나요. 하와이는 사진 신부들이 터전을 잡고 자녀를 키워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주옥같은 이야기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 보세요, 75세 이상 한인 사회 보통 어르신들까지 취재 집필에 응답하는 분을 선정하여 김덕환 목사의 책임 감수 하에 발행하게 됩니다

서문 : 김사빈

고급 양장 450페이지 분량으로 한국 들소리 신문사가 2018년에 출간할 예정이다

문의: 최옥형 작가 (808-741-5727)

김사빈 작가 (808-990-1365)

사랑의 Food Bank에 1000불 도네션 하와이 백향목교회 이유희 권사

하와이 백향목교회 여선교회 총회장 이유희 권사가 사랑의Food Bank 지난여름에 이어서 이번에도 1000불을 도네이손 하였다. 사랑의 Food Bank 는 매주 화요일 하와이 백향목교회 마당에서 호놀룰루시 로컬 영세시민들을 위하여 음식을 배급하는 구제 사업시스템이다.

제1경로 대학 재정 보고

월별	후원금	지출내역	잔액
1월	\$1.350	\$1.060	\$ 290
2	959	608	632
3	1.600	1.109	1.123
4	650	1.116	657
5	1.410	1.277	789.06
6	vacation		
7	1.338	886.34	1.241.33
8	1.770	597.07	2.414.33
9	380	1.392.89	1.401
10	1.732.08	1.529.32	1.604.20
11	vacation		
12	330	728.45	1.205.75
	11.510.76	10.305.01	

2016년 12월 20일 현재

Balance \$1205.67

작성자 학장:함돈옥

Daniel Ham

2016년 제1 경로대학 도네손 명단

1월달 도네손	3월 달 도네손
이원임 \$30	제넷 \$100
김영희 \$30'	권동숙 \$50
김송죽 \$30	세탁소 \$200
임수자 \$100	홍성희 \$100
한기숙 \$30	소연화 \$200
양송덕 \$30	DR장 \$100
김무순 \$30	이정숙 \$100
박영희 \$50	이지혜 \$200
주혜자 \$50	민충희 \$50
배원성\$100	엘리자벳\$100
김순애\$100	정애자 \$50
홍성희\$100	한죽록 \$100
세탁소\$200	김용민 \$5
이지혜\$200	현정숙 \$50
교회서\$500	강혜은 \$50
김영태\$100	고려 한의원 \$100
주혜자 \$50	수 입 \$ 1.1600
1월달 총수입1,350	지 출 \$ 1,10
2월 달 도네손	4월 달 도네손
이선희 \$30	오경자 \$80
이계량 \$30	전정희 \$50
강전숙 \$30	장영숙 \$50
박영희 \$30	박연숙 \$50
이진희 \$30	김익수 \$50
곽영옥 \$30	김영태 회장\$100
김종순 \$30	총수입 \$380
오진희 \$30	
박인준 \$20	5월 도네손
김송죽 \$30	홍성희 \$100
김무순 \$30	전조희 \$20
박영희 \$50	세탁소 \$200
양송덕 \$30	오정숙 \$30
한임수자 \$100	루이스 \$100
한기숙 \$30	홍성희 \$100
김명희 \$30	DR 장 \$100
배원성 \$30	수입 \$ 650
이지혜 \$200	지출 \$ 1,116
장DR \$100	
총 수입 \$950	
2016년 제1경로 대학 재정보고 2016년 12.20	



4/16/2017/ 586-B1-와이나에 벨리/홈리스자농장

홈리스 자활농장 미팅 개최 농장 공동체 를 위한 설명회도

지난4월17일(월)와이나에 벨리에 소재한 홈리스자활농장에 거주하는 홈리스들 공동체 미팅이 약20명의 홈리스들과 홈리스 사역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재단 이사장인 김덕환목사의 사회로 농장현장에서 약1시간30분정도 열렸다.

농장현장에서 김덕환이사장은 4월16일(부활주일)날짜로 새롭게 임명된 농장운영대표 박정수련전도사와 농장 총괄매니저 박일보수련전도사와 농장재정관리 사역자로서 프랜세스목사와 설교사역자 커티스목사들을 소개하였으며,프린세스목사를 통하여 농장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룰을 낭독하고,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현안이 된 농장 집4채중 1가정과 홈리스 2가정들이 기르고 있는 개문제는 특별위원들이 따로 회의후 기를수있는 마리수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본 재단 푸드뱅크 활성화 위한 회의
하와이 주 하원 부의장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4월12일(수)1시,주 정부 청사 하와이주하원부의장 회의실에서 본 재단 푸드뱅크 관계자들과 하와이 주 푸드뱅크 회장과 총무등이 참석한가운데 주하원부의장의 소개와 사회로 본 재단 푸드뱅크 에이전트(재 허가)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날 회의 결과,본 재단이 다시 하와이 푸드뱅크 에이전트 되기 위해서 1차로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우선 3개월 임시 에이전트로 운영해 본 뒤 ,그 결과를 심사하여 재허가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본 재단은 지난2014년 본 재단 푸드뱅크팀이 푸드뱅크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영어 미숙 실수등으로 법을 어겨 징계를 받아서 하와이 푸드뱅크 에이전트 허가가 캡슐 된 바 있으며,그 이후로는 수년 동안 하와이 알로하 하베스트 푸드에이전트로만 푸드뱅크 사역을 제한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제2경로 대학에 이어 제1경로대학에서도
목요일 사랑의 푸드뱅크 행사 정례화**

지난해 9월17일 제2경로대학 수업 날, 푸드뱅크 행사를 가져온 본 재단 푸드뱅크 팀에서는 제1경로대학에서도 지난 4월13일부터(매주목요일)사랑의 푸드뱅크 행사를 겸하여 진행하고 있다.제1,2경로대학 어르신들은 물론 한국교민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하와이 성령캠프 제10차성회
오는 6월26일(월)부터28일(수)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불꺼져가는 현대교회의 성령사역의 대안으로 떠오른 제10차 성령캠프가 오는 6월26일(월)부터28일(수)까지 하와이 성 안토니오 수양관에서 2박3일 동안 열린다
올해로 지난10년을 1년에 1회씩 계속해온 성령캠프는 한국에서 목회자, 평신도 71명 정도가 이미 예약을 마쳤으며, 본 교회에서는 평신도, 목회자등, 미국 영어 반 평신도 87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총합계는 158명이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성령캠프가 끝난 뒤 2박3일 동안 하와이 오아후 섬을 관광할 예정이며, 와이키키 호텔 2박 동안 식사는 하와이 백향목 교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하와이 문의(1-808-255-1234/김덕환목사)

한미의 기부 문화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영국 자선 단체인 CAF 따르면 놀랍게도 그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자 장기독재에 시달려온 미얀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는 올해 기부수가 70%로 140개 국 중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나라는 3년째 1등을 달리고 있다.

미얀마는 응답자의 91%가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고 63%가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50%가 넘었다.

이간한 나라가 이처럼 기부에 열심인 것은 국민의 어려서부터 보시하는 것이 습관화 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걸 보면 자선은 돈이 많아서 하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문화나 개인의 소신의 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있다.

자선 지수 2위는 미국으로 61%호주 60% 뉴질랜드 59% 스리랑카 57%캐나다. 56%순으로 되었다. 모두 자선이 생활 습관이 된 영미권이나 불 교권 국가임을 특징이다.

교역 규모 세계 10위권에 드는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 33%로 세계 75위다. 중국이 11위로 꼴찌를 한 것에 비하면 낮지만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다.

지난 일 년 간 기부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한국국민이 35%만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인들은 100달러를 벌면 2달러를 도네이션 하지만 한국인은 50센트 밖에 하지 않는다.

보건 복지 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기부금은 12조 4900억 원으로 GDF의 0.87%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 비율이 2%뉴질랜드1.35%에 달한다.

자선을 하는 사람 수나 액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자선의 대상도 문제다.

기부대상1위는 종교단체가 30%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은 불우 이웃을 돕는 자선단체이다.

이들 두 곳에 대한 기부가 전체의 2/3에 달하고 교육기관은 전체 기부의 4%문화 예술이자기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을 감사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 돕고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필요한 교육 문화 활동에는 매우 인색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가 10%가 넘는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부를 창출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배분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빈부 격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발생한 격차는 부의 상속을 통해 자식에게 이전되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육도 잘 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

한국이나 미국을 말론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자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빌게이츠와 워렌 버핏등이 주도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기부서약운동은 그런 점에서 선진 미국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 억 원 이상 기부하는 아네소사이어티 회원 수는 2008년 6명에서 이제는 거의 1300명에 달한다.

기부의 시준연말을 맞아 한 국민들이 기부의 중요성에 눈뜨길 바란다. (한국일보 기사 2017년 4월)

Pay to the ORDER

Hawaii Cedar Church
Good Samaritan Foundation

1545 KAMEHAMEHA IV RD HONOLULU HI 96819
기부금 후원 문의 (상담) :1-808-255-1234

이메일 :hicedar54@hanmail.net
www.hawaiicedarchurch.org
www.higoodsamaritan.org

사도행전 2장으로,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고, 병 고침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성령캠프 제10차 성화에 초대합니다.

말세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교회강단도, 성도들도
빈들에 마른풀같이 ! 에스겔골짜기의 마른뼈다귀같이 ! 사랑과 용서와 성령과 은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메마르니까, 우리 심령의 밝은 길가 발이 되었고,
돌짝발이 되었고, 가시발이 되어 첫 믿음 ! 첫사랑을 잃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 (눅12:49)

[성도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속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

회개하여,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의 불을 ! 은사의 불을 ! 붙이시기 바랍니다.

쟁쟁작작도 오세요 ! 타다만 장작도 오세요 ! 시험들어 연기만 풀풀 나는 장작도 오세요!!!

[사명자들이여!] 사도행전2장으로 들어갑시다. 오순절 성령강림재현을 우리 다 같이 사모합시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고 !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은사받고,
기뻐 뛰며, 인격목회를 이루어갑시다.

보라 !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 아 래 -

-때 : 2017년 6월26일(월)오전12시 - 28일(수)오후3시까지(2박3일)

-장소: 미국 하와이 성안토니오수양관(3351 Kalihi St Honolulu, HI 96819)

-주최 : 하와이백향목교회(성령캠프)대표 : 김덕환 목사[1545 Kamehameha IV Rd Honolulu, HI 96819]

-인원 : 130명(교역자반:30명/평신도반:70명/미국로컬영어반:30명)

-등록비 : 목회자반(등록비/숙식비(유니폼포함):1인/120불씩(부부100불씩)
평신도반(등록비/숙식비/유니폼포함)

-강사진 : ※ 한국강사(진등용목사/강헌식목사/임병재목사/안명복목사
김재일목사/반인홍목사/김성원장로)

※ 미국강사(김덕환목사/이원철목사/랜디목사/Ropeta목사)

-관광코스 : 성령캠프후 오하우섬 1일 관광 : 와이키키호텔2박

(한국에서 비행기표 끊으실때 6월26일 아침 하와이 도착)

-등록문의 : 캠프본부:김덕환목사(미국하와이대표/1-808-255-1234